

익산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박차

올해 인화동~동산동 잇는 대간선수로 유희부지에 '나룻가 도시숲' 3차 조성 사업 추진

익산시가 어디서나 자연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룻가 도시숲' 3차 조성 사업으로 올해 인화동 나룻가 마을 앞 대간선수로 유희부지를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화동에서 동산동을 잇는 대간선수로 유희부지를 활용해 '나룻가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2021년 인화공원 하단부 대간선수로 0.4ha를 시작으로 지난해 오케이모터스 등 주변 공장 앞 대간선수로 1.2ha에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나룻가 마을 앞 대간선수로 유희부지 1ha를 정비해 문그로우와 은목서 등 25종 수목 1만 4576주를 심는다. 아울러 산책로 1km를 기존 조성한 도시숲과 연계해 순환형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이팝나무 군락지를 활용해 그늘 속을 산책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여기에 에메랄



익산시는 '나룻가 도시숲' 3차 조성 사업으로 올해 인화동 나룻가 마을 앞 대간선수로 유희부지를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드그린과 블루엔젤, 서부해당화, 쪽동백 등을 심어 정원 형태의 쉼터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녹색정원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

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도심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숲을 만나고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체계적 지원으로 공기업 취업 돕는다

'Triangle+ 캠프' 등 재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8월 19일과 20일 군산대는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2024학년도 Triangle+ 캠프'를 컨싱터리조트 지리산 남원에서 진행한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재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며 재학생 공기업 취업의 길을 활짝 열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학년도 Triangle+ 캠프'는 학생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캠프는 광역권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 개발 능력을 증진시키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8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컨싱터리조트 지리산 남원에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로설계에 필요한 핵심역량과 취업전략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특화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직접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공기업 취업을 위한 진로 설계 및 교과과정,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외에도 상시 운

영되는 공기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재학생들은 언제든지 취업지원실을 통해 공기업 입사지원프로그램 및 면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인적성 검사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또한, 국립군산대는 공기업, 공무원(7급),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2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인재반을 모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실 기숙사, 개인 학습공간, 장학금, 맞춤형 컨설팅, 취업대비 특강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지역인재 7급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PSAT 공직 적성성평가분석' 특강은 학생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목표에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군산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북페어 2024' 개최... 31일부터 시작

한국문학의 거목 황석영 작가 참석·특별대담 열려

오는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군산 북페어 2024'에 '한국문학의 거목' 황석영 작가가 참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북페어 2024' 행사 첫날인 31일에 황석영 작가, 류보선 문학평론가의 '작가와 떠나는 책으로의 향배'라는 제목의 특별대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거장이 이야기하는 인생과 창작의 탐구를 담은 이번 특별대담을 시작으로, 군산 북페어 2024는 책을 판매하는 자리이자 출판과 책의 의미를 탐구하는 장인 북마켓, 주제강연, 낭독회,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황석영 작가의 대담에 이은 또 다른 이벤트로 김현, 유현아, 이소연, 전옥진(세월호 낭독팀) 강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학작품에 녹아있는 군산 이야기 낭독회가 진행된다.

행사 2일 차에는 일본 도쿄B&B서점의 우치누마 신타로 대표 및 해외의

서점 운영자들과 함께하는 강연이 진행된다.

2030세대의 책 문화를 이끄는 젊은 작가들의 솔직한 대화를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시대 책의 의미'도 주목할만한 이벤트다. 씨네21 기자 이다혜가 사회를 맡은 북토크는 90년대생 작가 박참새, 서한나, 조예은이 참여한다.

북마켓과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대담 및 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군산북페어 홈페이지(gsbf.kr),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kr)에서 사전예약으로 진행하며 잔여석은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산북페어 2024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군산 북페어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gsbf.kr)을 참조하거나, 북마켓·전시·워크숍은 소룡협력센터 군산(063-464-1507), 주제토크·낭독회는 군산 시립도서관 도서진흥계(063-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은파호수공원 악취 해결책 마련해야"

강임준 군산시장, 근본적 원인 파악하고 대책 강구 지시

19일 간부회의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은파호수공원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은파호수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은파호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악취제거 역시 농어촌공사가 맡는 것이 맞다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수조제거만을 제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치료제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마스크 쓰기나 손씻기 등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수 소하천 사업 내용을 보고받고 "치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국장 이하 간부들이 확실하게 파악하라"고 말을 맺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우판신 미안마 주한대사 면담

양국 간의 문화·종교 등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 논의

군산시의회는 19일 군산시의회 의정실에서 우 판신 미안마 주한대사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미안마 대사 및 국방무관 부부와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 박경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열불사 해운스님도 함께하여 한국과 미안마 간의 우애 증진 및 다양한 상호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우민 의장은 "우판신 미안마 주한대사 일행의 군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산은 새만금 개발이



이투어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며 "앞으로 미안마와 문화·경제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4일 전북 생활문화 라인댄스 경연대회 개최

익산시는 '2024 전북 생활문화 라인댄스 경연대회'의 본선 경합이 오는 24일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주관하며,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사전 심사를 거쳐 도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라인댄스 동호회 총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합을 통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패,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063-837-07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교도소 세트장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익산시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2024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공포를 뜻하는 '호러'와 홀로그램을 융합한 이색 축제다. 익산의 관광 명소인 교도소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다.

올해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행사를 주관해 더욱 탄탄한 이야기와 홀로그램 기술력으로 방문객에게 한층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과 홀로그램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브랜드 정체성(BI) 공모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향후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상징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horifest.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